

94년 국내외 철강재 가격 전망

姜求永*

上昇勢로 反轉된 世界 鐵鋼材 價格

國際鐵鋼 價格은 90년 이후 下落勢를 보이다가 93년도부터 점차 回復勢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철강제품의 가격은 대체로 需給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EC 철강재의 가격 變動幅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당히 크다. 그만큼 EC 철강산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며,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도 유럽이다. 미국의 철강재 가격은 비교적 安定上昇勢를 보이는 반면에, 在

庫가 쌓여 있는 일본의 철강재 수출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C의 경우는 경기회복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면서 철강산업의 합리화(시설감축)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가격의 변동폭은 줄어들면서 서서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1> 熱延코일 가격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331	380	391
EC 평균가격	304	328	338
EC 수출가격	260	280	285
일본 수출가격	340	390	375

자료: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각호
D.F.Barnett, "The International Steel Industry: Competition in a New Era" 1993. 11.4

* RIST 경영경제연구소,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제량 경제학 전공.

<표 2> 冷延코일 가격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468	529	540
EC 평균가격	443	456	462
EC 수출가격	380	365	385
일본 수출가격	455	490	500

자료: 앞의 책.

<표 3> 열지도금(Hot Dipped Galvanized) 코일 가격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540	606	628
EC 평균가격	469	474	482
EC 수출가격	455	415	440
일본 수출가격	520	540	530

자료: 앞의 책.

<표 4> 厚板 가격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340	452	485
EC 평균가격	339	300	306
EC 수출가격	493	567	585
일본 수출가격	528	491	511

자료: 앞의 책.

<표 5> 形鋼 가격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325	402	424
EC 평균가격	339	304	336
EC 수출가격	491	552	585
일본 수출가격	340	400	410

자료: 앞의 책.

<표 6> 鐵筋 가격 (US\$/tonne)

(단위: 달러/톤)

지역	92년 10월	93년 10월	94년 상반기(전망)
미국(Midwest)	300	375	397
EC 평균가격	189	236	229
EC 수출가격	235	275	270
일본 수출가격	¥61,000	¥56,000	n.a

자료: 앞의 책.

美國: 鐵鋼消費 增加勢 지속으로 價格上昇 豫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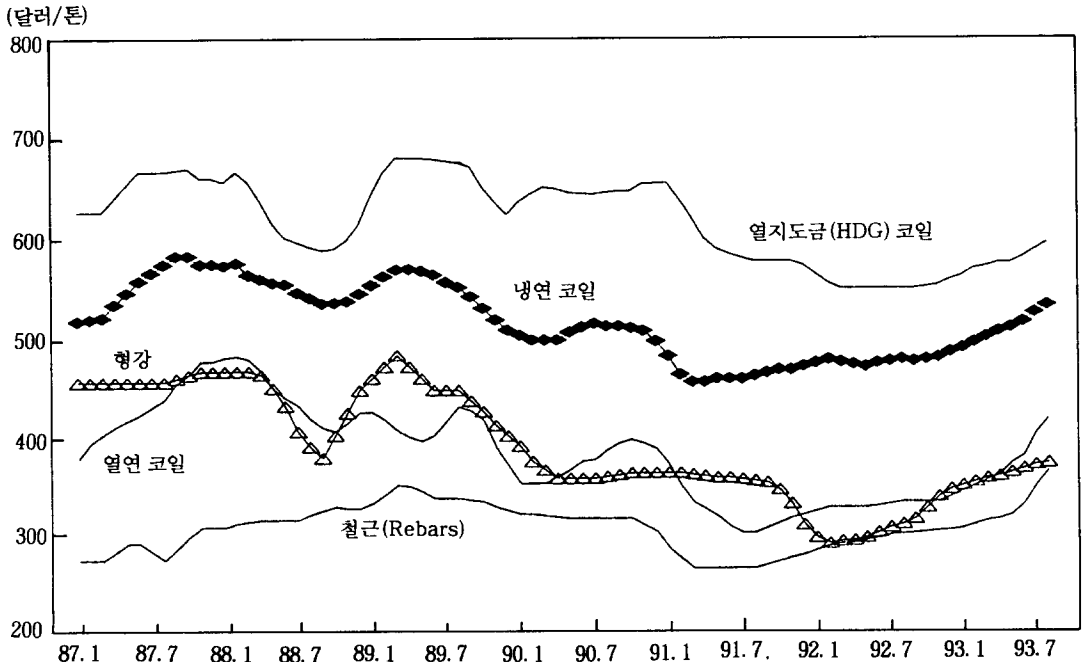
AISI(美國鐵鋼協會)의 보고에 의하면 93년도의 鋼材消費는 92년도에 비해 약 6% 정도의 上昇勢를 지속하고 있다. 鋼材消費를 産業別로 보면, 自動車 産業은 11%, 建設業은 10.4%, 原油 가스業은 18.9%의 鋼材消費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資本財에 대한 投資는 여전히 부진하여 電氣機械의 경우 鋼材消費는 불과 1.6%의 增加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면서 資本財의 受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소비도 그만큼 증가될 전망이다. 미국의 강재가격은 鋼材의 輸入 狀況에 크게 좌우된다. 그동안 自律規制(VRA) 또는 反덤핑提訴 등의 방법으로 輸入을 규제함으로써 강재가격, 특히 板材類의 가격은 92년 1/4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 동안 미국의 철강기업들은 가격상승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稼動率의 유지가 原價를 크게 좌우하는 一貫製鐵所의 경우 채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되면 생산을 늘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강재의 공급이 급증하게 되어 강재가격을 압박하는 循環을 반복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본적으로 공급상황이 강재가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미국의 鐵鋼社들은 94년도에는 급격하게 供給을 늘리기보다는 價格維持에 더 큰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4년도 미국의 강재 가격은 대체로 93년 3/4분

기에 비해 5% 내지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在庫가 쌓이고 있으며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鍍金鋼板을 비롯한 板材類의 가격도 넘치는

<그림 1> 미국 철강재 가격 추이



자료 : Metal Bulletin Research, Steel Markets Monthly, 1993. 10.

日本 : 鐵鋼消費 · 生産 減少 및 價格下落 豫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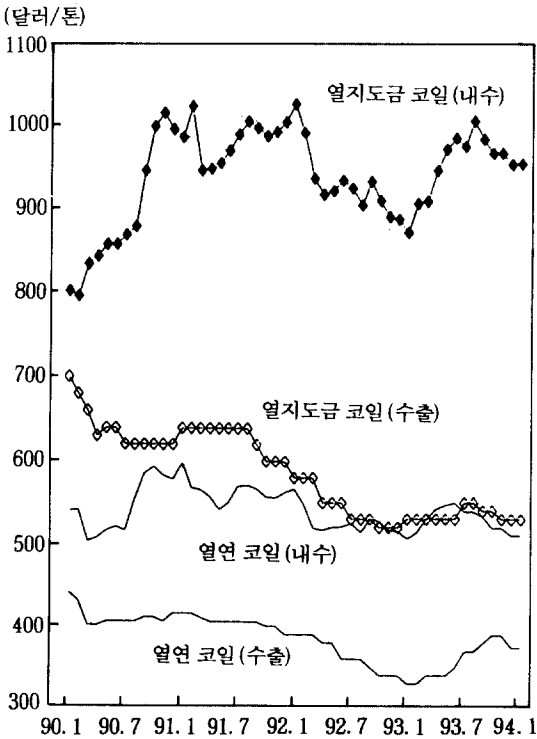
일본의 철강업계는 현재 國內景氣의 침체, 엔高 및 中國特需의 中斷이라는 3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鐵鋼需要産業 - 자동차, 조선, 건설 등 - 의 침체는 더욱 심각하다. 國內景氣의 부양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公共事業을 시작하기도 전에 터진 건설계약에 관련된 뇌물사건으로 公共事業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條鋼類는

在庫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에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東歐圈으로부터 값싼 물량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産 판재류(특히 鍍金鋼板)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일본 판재류의 수출가격도 약화되고 있다. 熱延 및 冷延鋼板의 수출가격도 중국특수의 冷却으로 품질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가격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高의 여파로 일본의 철강수요 산업들은 海外로의 생산시설 移轉속도를 증가시키

고 있다. 1) 일본의 철강재는 수요산업을 따라 해외로 同伴輸出되었으나 엔高로 말미암아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鐵鋼社들은 생산계획 및 시설투자를 감축하고 있다. 2)

<그림 2> 일본 철강재 가격 추이



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EC의 철강수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가운데 東歐의 값싼 철강재가 유입되고 있어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低成長 내지는 마이너스 成長을 지속하는 반면 失業率은 계속 증가하여 93년 하반기에는 10%를 넘어섰다. 統獨의 후유증은 가시지 않은 채 換率의 불안이 겹쳐 마스트리트 조약은 발효되었으나 당초에 기대했던 통합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소비는 9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91년 127백만톤, 92년 125백만톤, 92년 116백만톤 예상) 생산능력이나(93년 190백만톤) 생산량은(93년 125백만톤 예상)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EC는 철강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기금(10억 ECU, 약 11억 4천만 달러)을 설치하고 설비를 감축하는 철강업체에 대해 구조개편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3) EC 전체로 95년까지 粗鋼능력은 약 30백만톤, 인력은 약 5만명을 감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개별기업 또는 국가의 입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리화가 의도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4)

94년도 EC 철강재의 가격은 93년도에 비해

EC : 鐵鋼需給不均衡의 지속으로 價格不安

EC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공급과잉으로 여

1)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空洞化를 초래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노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새 정부는 계속하여 警告하고 있다.

2) 가와사키와 고베는 투자지출을 반으로 줄였고, NKK는 향후 2년간 40% 삭감할 계획이며, 수미모토는 20% 줄일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의 인력감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로사들은 현재 71,5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30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3)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 톤당 40ecu(形鋼업체)에서 100ecu(高爐업체)까지 貸付해 줄 계획이다.

4) EC는 80년대에도 합리화를 추진하였으나 합리화 자금이 대부분 조업유지 또는 설비투자에 사용되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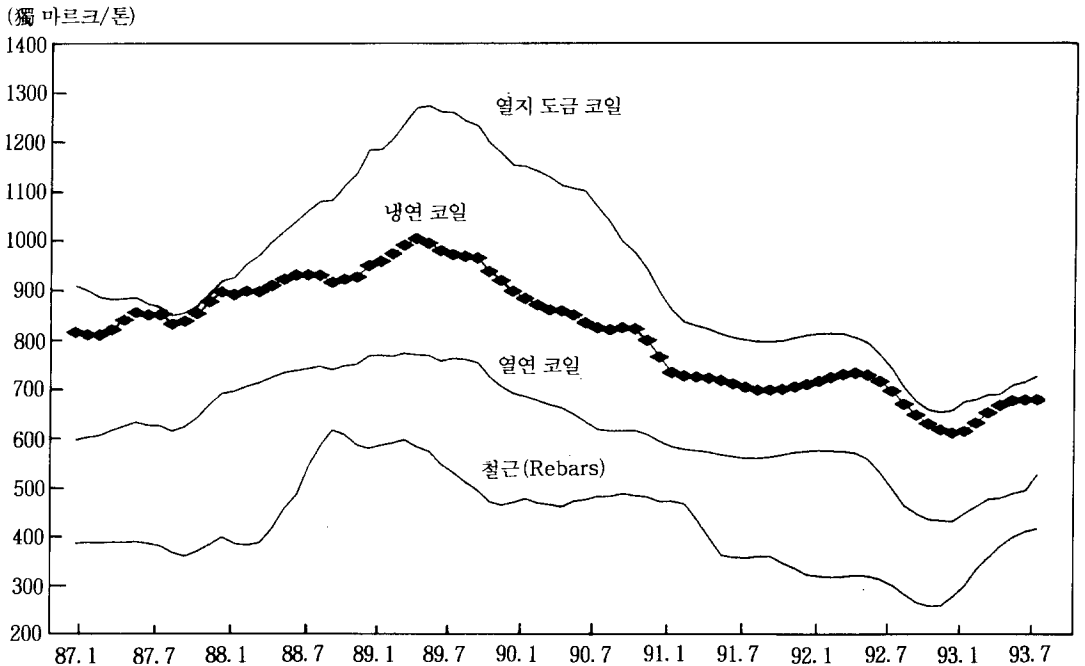
약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도 이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다 합리화도 추진되고 있어 수급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동구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에 대한 쿼타제를 도입하고 반덤핑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유입물량이 어느 정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4년도에는 경제도 침체를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보여 강재소비는 93년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C의 강재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의 강재가격에 비해 매

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國內 鐵鋼需給 및 價格展望

94년도의 국내 鐵鋼需要는 93년에 이어 계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4년에는 文民政府 아래 주도되어 온 改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不確實性的의 要因이 제거될 것이므로 國內經濟는 93년도까지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그림 3> EC 철강재 가격 추이



우 낮은 수준에 있는데다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강재가격은 더 이상 하락할 여지가 없으며 수급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승폭

기대된다. 특히 엔高의 영향이 9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외국투자를 도입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임으로써 施設投資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93년 하반기에 수그러 들었던 中國特需는 비록 93년 상반기 만큼은 안될지라도 94년도에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현재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다. 특히 14期 3中全會에서 高度成長과 經濟改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이며 市場經濟體制가 보다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별한 異變이 없는 한 國內外의 경제적 여건은 철강업에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국내 鐵鋼材의 가격은 대체로 규제대상이므로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 經濟論理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근의 경우 고철값은 폭등하고 있는데 철근 가격은 규제에 묶여 있어 철근 생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94년도에는 철근가격을 인상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폭은 다른 물가라든가 정부의 경제운용계획, 그리고 업계의 對政府 로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經濟的 要因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철근 시장의 歪曲을 초래할 뿐이다.

국내 鐵鋼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鐵鋼材에 대한 가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만약에 獨占價格이 문제라면 輸入開放을 통하여 競爭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國際化를 기치로 내세운 지금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철강업계의 效率性을 저

하시켜 궁극적으로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의 철강재 가격규제는 한편으로는 철강업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역할도 한다. 開放化와 國際化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 빨리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